

월간 실적보고

2016.11

Summary of 2016 Nov

1.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27.3%** 성장
 -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입장권, Pass 등)을 합산한 수치
2.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14.8%** 성장
 - 패키지 **12.5%** / 티켓 **18.5%** YOY 성장 (11.3만명 / 7.6만명)
3. 남태평양 **33.7%** , 동남아 **18.4%** , 미주 **13.6%** , 중국 **13.6%**
 - 일본 제외한 전 지역 **플러스** 성장률
 - 유럽 **1.9%**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

11월 Review :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성장률 27.3%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성장 14.8%, 송객인원 19.0만명

패키지 성장률 12.5%, 송객인원 11.3만. 두 자리 성장률 6개월 지속. 동계 비수기 들어 전반적 성장 속도 다소 둔화. 그러나, 10월 대비 소폭 상승한 성장률 기록하며 패키지 수요 점진적 회복세 확인.

티켓 성장률 18.0%, 송객인원 7.6만. 2년 4개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률 지속.

11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6	113,433	76,492	189,925
2015	100,865	64,524	165,389
YOY	12.5%	18.5%	14.8%

패키지 YoY : 8월 10.1% → 9월 20.1% → 10월 10.4% → **11월 12.5%**

티켓 YoY : 8월 30.6% → 9월 41.8% → 10월 23.4% → **11월 18.5%**

총송객 YoY : 8월 18.2% → 9월 28.8% → 10월 15.2% → **11월 14.8%**

지역별 성장 (YoY)

11월 지역별 인원 성장률 **남태평양 33.7%** , **동남아 18.4%** , **미주 13.6%** , **중국 13.6%**

남태평양 +33.7%, 9개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률 지속하며 장거리 노선의 성장 견인.

동남아 +18.4%, 태국국왕 서거 애도기간의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며 두 자릿수 성장률에 재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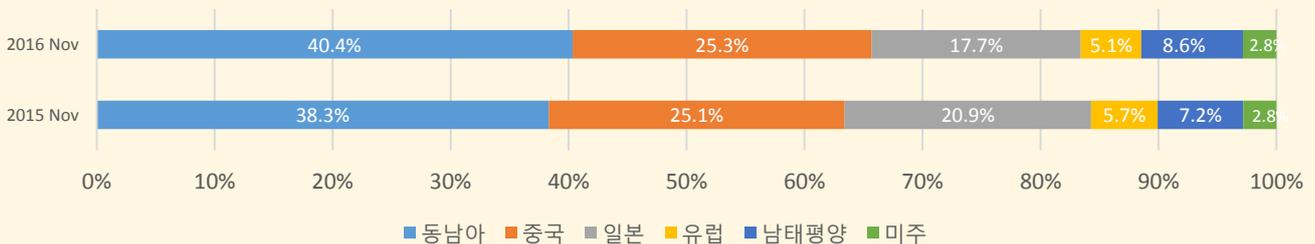
미주와 중국 +13.6%, 비수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률 지속하며 각각 장거리 단거리의 안정적 성장 뒷받침.

유럽 +1.9%, 최근 4개월간 전년대비 성장과 역성장을 반복, 수요 회복의 조짐.

일본 -4.5%, 역성장 폭을 비수기 들어 한 자릿수로 줄이며 수요 회복 기대감 유지.

11월 비수기임에도 양호한 성장성으로 일본을 제외한 전 지역이 고르게 성장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명, %)

	16년 12월	17년 1월	17년 2월
증감률	7.7%	12.9%	33.2%

* 2016.11.30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16년 12월과 17년 1월의 예약율은 신규예약의 둔화로 인해 다소 하락,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에 쏠린 관심과 그로 인해 유발된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레저 수요가 단기간 위축된 것으로 추정. 길어지고 있는 국정불안과 촛불시위 등으로 16년 4분기 예약률이 기대보다 하회하고 있으나, 여행업 특성상 수요가 소멸되기 보다는 2017년 1분기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 실제로 17년 2월은 33.2%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음.